

이렇게 들었다

흔들리는 교권 스승 공경하길 부처님 대하듯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이유로 수업중 경찰에 연행된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것도 학생들의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실력없는 선생이 속제는 많이 내준다'고 떠드는 아이의 머리를 쥐어 박았다고 학생들이 교사를 신고하는 등 하루에도 평균 10건 가량의 이 같은 신고가 접수된다고 하니 선생님과 제자라는 단어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렇듯 사표(師表)의 위상이 곤두박질하는 한 우리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대다수의 교사는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아이들과 이 사회를 지키려 애 쓰고 있다. 교권회복은 우리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다. 스승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 제자는 스승 있는 곳에서 거친 말을 하지 못하며, 스승의 꾸짖음에 대꾸해서는 안 되며, 스승의 상식을 먼저 닦아서 먼저나 깨기 따위가 없게 해야 하며, 스승에게 자주 가서 필요한 것을 물어야 한다.

■ 제자는 스승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침을 뱉지 못하며, 스승의 경행(經行)하는 곳은 늘 쓸어야 하며, 스승의 하는 일을 헛것 도와야 하며, 남 있는 곳에서 스승의 과실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 (선경경경)

■ 스승 공경하기를 부처님 공경하듯 해야 한다. (무진의보살경)

■ 제자는 마땅히 다섯 가지 일로 스승을 바르게 존경하고 바르게 봉양해야 한다. 다섯 가지란, 모르는 점은 반드시 밝혀서 질문하며, 배움을 반드시 사랑하며, 일을 반드시 민첩히 처리하며, 그릇된 행위가 반드시 없게 하며, 스승을 반드시 공양함이다. (선생자경)

■ 제자가 스승을 공경해 받드는 데는 다섯 가지 일이 있어야 한다. 다섯 가지란 무엇이나 하면, 첫째는 필요한 물건을 공급함이고, 둘째

는 존경해 봉사함이고, 셋째는 존중해 기대함이고, 넷째는 가르침을 따라서 어기지 않음이고, 다섯째는 스승으로부터 들은 가르침을 잘 수지해 잊지 않음이다. (장야합경)

■ 스승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스승을 보았을 때는 곁에서 섬기고 보지 못할 때는 가르침을 생각하여, 효자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같이 하며, 사람들이 음식을 생각하는 것같이 해야 하니라. (중심경)

■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강당에 모이게 하고 교단의 발전을 위해 일곱 가지 법을 말씀하셨다. 첫째 서로 자주 모여 정의를 강론하라. 둘째 상하가 하나로 협력하여 공경하고 뜻을 어기지 말라. 셋째 법을 받들고 금할 것을 금하여 제도를 어기지 말라. 넷째 스승을 받들어 섬겨라. 다섯째 마음을 닦되 효도와 공경을 우선으로 하라. 여섯째 계행을 닦아 욕심과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 일곱째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뒤로 하며 명예와 이익을 탐내지 말라. 그리하면 법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라. (장야합경)

■ '선남자야,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 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이 있으니, 첫째는 좋은 벗을 가까이함이고, 둘째는 성내는 마음을 끊음이고, 셋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름이고, 넷째는 연민의 정을 일으킴이고, 다섯째는 부지런히 정진하는 일이니라.' (우비세계경)

■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크게 괴롭다. 예의와 질서가 없고 남의 뜻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큰 의리(義利)로부터 타락하게 된다. 공경할 줄 아는 이는 예의와 질서가 있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는 안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공경할 것이 있어서 예의와 질서를 지킬 때 되고 남에게 순종하면 의롭고 이로와서 크게 만족해 진다. (집야합경)

■ 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일이 있을 때는 꾸짖어 가르쳐 주어야 한다. 첫째는 신심이 없음이고, 둘째는 게으름이고, 셋째는 거친 말이고, 넷째는 부끄러움이 없음이고, 다섯째는 악지식(惡知識)과 가까이 지남이다. 다만 다섯 가지 일 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라도, 다 꾸짖어 가르쳐야 한다. (유부근본비니야을)

본지 명예기자들의 '불교계 개개에는...'

스님, 정법으로 돌아가세요

조계종 사태가 두달째 계속되고 있다. 스님들의 이권다툼에 조계사는 폐허가 되다시피했고, 불자들은 어디를 가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불교에 대한 혐오감이 팽배해져 사회적으로 불교인이라는 사실이 흉이 돼 버렸다. 10년, 20년 포교는 공염불이 돼 버린지 이미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인들이 하나 둘 교회로, 상담으로 받을 뉘는 것도 과연 어떤 명분으로 그들을 설득할 것인가. 불교의 정화와 개혁은 부처님 법에 가까이 가는 것일 것이다. 스님들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참회하고, 공심으로 절실함을 운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신도들도 '우리 스님'을 좇으며 이런 다음에 합류해 다닐게 아니라, 경건공부를 근본으로 삼아 기도정진하며 스님들이 부처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드리자.

이영자(신수회 회장)

불자 모두가 호법신장 돼야

이번 조계종 사태는 '사부대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스님들의 분쟁과 충돌은 '우리 스님'을 철저처럼 좇는 한국불교의 재가신도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게 만들었다. '나와 뜻이 틀리면 적이다'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이 재가신도들 사이에 팽배해져 버린 것이다. 29일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제 재가불자들이 여법하게 나서야 할 때다. '네 스님, 내 스님'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총무원장 선거가 여법하게 치러져 하루속히 종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불자 모두가 호법신장이 돼 나서야 한다. 불교는 스님들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다. 한국불교의 스님들이 무소유정신으로 수행정진하며 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가불자들이 거울이 되자.

장인식

새싹불자 육성 지속적 노력

어린이불자들은 미래불교의 얼굴이다. 점차 노령화되어가고 있는 불교의 제2중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싹불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종단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타 종교에 비해 어린이들을 부처님 품에서 보듬어 안을 시찰과 어린이교육 포교 불자 모두가 호법신장이 돼 나서야 한다. 불교는 스님들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다. 한국불교의 스님들이 무소유정신으로 수행정진하며 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가불자들이 거울이 되자.

이희명화

불교상징물 보호 앞장서야

새해에는 불교의 정체성을 찾는 데 노력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 요즘 상가나 주덕가 주변을 살펴보면 '군'자 간판이 자주 눈에 띈다. 본래 '군'자는 고대 인도로부터 길상의 증표로 전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원의 표지나 불교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어쩌면 일인지 근자에 와서는 00보살, 00동자, 00도사 등 점잖이나 사주보는 곳의 간판과 함께 '군'자가 버젓이 걸려있는 것을 본다. 불교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불교계에는 불교기를 비롯 다양한 불교상징물들이 많다. 무속인들이 불교를 왜곡하고 상징물들을 변질시킨다면 불교계는 '군'자 특색을 신성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라도 보호하고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불교계가 정체성을 찾아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현재명)

“다시 국민의 귀의처 되려면”

제언 ㊦ 대원사주지 현장스님

이승만정권 출범 직후 서울대 도서관에서는 불교 자료들이 자취를 감추고 영어로 된 기독교 서적들이 빈자리를 채웠다는 것이 그 당시 담당자의 증언이다. 이승만 정권의 불교정책은 임영신의 논문대로 한국을 어떻게 기독교 국가로 만들 것인가에 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것은 우리들이 받아 온 교육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민족문화를 증흥시켜 문화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백범 김구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기독교 세력에 의해 제거되지 않으면 안될 운명이었던 것이다. 기독교 정신에 의한 민족 개조론을 부르짖던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한국 사회에 기독교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민족 종교들을 왜색시킴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기독교의 일본선교 실책은 큰 교훈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실인 기독교인인 이승만을 움직여 일제 청산과 불교정화의 명분을 빌려 불교 자립의 시나리오를 꾸민 것이다. 그것이 불교정화의 씨앗이 되었다. 지금도 살아 있는 기독교의 원로 목사가 불교정화(?)에 불을 붙이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의 증언이다.

이렇게 보면 불교 조계종의 분쟁은 기독교의 선교 전략에 희생 제물로 이용된 꼴이다. 불교 정화의 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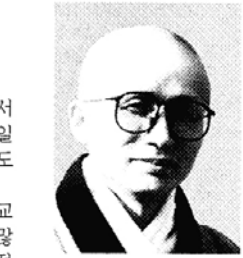
중에서 가장 큰 손실은 절 집에서 공부한 인재들을 모두 잃어버린 일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크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전부터 내려오던 불교 의식들을 대척시킨 것'이라고 많이 폐지하여 불교 문화의 맥이 단절된 것이다. 절을 뺀고 빼앗기면서 소중한 문화재들이 수없이 훼손되고 도난 당했으며 끊어진 재단 소송비용으로 불교 재산은 바닥이 나 버렸다. 불교 분쟁에 힘입어 기독교의 선교 정책은 한국 땅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 민족을 분열시키고 국조 단국신앙과 우리의 전래 풍속을 미신으로 매도하고 우상숭배 등의 이유로 책봉과 사찰방화 등 민족문화를 파괴하고 있는 죄악에 대해 양심 있는 기독교인들의 큰 참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교정화가 시작된지 54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수행을 통해 자체 정화를 이루지 못한 일은 불교 지도자들의 큰 허물이 아닐 수 없다.

3. 조계종 화두 '돈'과 '총무원장' 송광사 구산스님 생전에 서울에서 기자들이 찾아와 물었다.

"1600년 찬란한 불교문화를 가진 한국 불교가 오늘날 왜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어디에 병든 불교가 있느냐. 불교는 병들지 않았다. 병든 것은 현대 문명이다. 병든 문명 속의 병든



인간들이 불교를 구성하고 있어서 병든 것처럼 보일 뿐이다. 불교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폭력의 뿌리를 캐 들어가면 기독교의 음모와 정치권력의 공간으로 시작됐지만 요즘의 불교 분쟁은 문종간의 세력 다툼도 아니고

분쟁 원인 '돈'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불교발전재단' 구성 전문사부대중 운영

감투싸움도 아닌 '돈'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불교가 세속화되면서 고달픈 도의 길을 외면하고 막강한 권력과 달콤한 돈의 매력에 무릎 꿇어 버린 '젊은 스님(큰스님 아님)' 때문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한국 불교에서는 세계 어느 불교 국가에도 없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총무원 제도가 불교 발전이 아닌 불교 광산의 구심점 노릇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불교 활동을 하는 재가불자들은 "조계종이 빨리 망해야 불교발전을 생각할 수 있다"는 탄원을 하고 있다. 불교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한숨

취고 있는 지금이 한국 불교로서는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자체 정화'의 가장 좋은 기회이다. 이번 기회에 놓치면 조계종은 한국 사회에서 퇴출 대상 제 1번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현재 조계종의 크고 작은 분쟁들은 그 원인이 한 가지, '돈' 때문이다. 수입 많은 사찰을 차지하려고 하는 측과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간의 총무원을 통한 로비 활동이 밖으로 '타부싸움'으로 비쳐질 뿐이다.

우리 나라 정부 예산과 마찬가지로 조계종도 가장 많은 예산이 국방비(?)로 탕진하고 있다. 불교 분쟁의 원인이 돈 때문이라는 증거는 가난한 절에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싸움이 일어난 적이 없었음을 생각해 보면 된다.

다음은 조계종의 분쟁 원인을 해결하고 불교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필자의 소견이다.

먼저 한 개의 행정사찰(조계사)과 세 개의 관공사찰(불국사, 선유사, 내장사) 다섯 개의 기도사찰(선문사, 연주암, 보문사, 흥련암, 보리암)을 종단의 직영사찰로 지정하여 공개 운영해야 한다. 직영 사찰은 현 주지의 임기가 끝날때 동시에 공개 운영체제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위의 아홉 개 사찰에서 얻어지는 재정수입을 기반으로 하여 '불교 발전 재단'

분쟁 원인 '돈'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불교발전재단' 구성 전문사부대중 운영

보면 된다. 다음은 조계종의 분쟁 원인을 해결하고 불교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필자의 소견이다.

먼저 한 개의 행정사찰(조계사)과 세 개의 관공사찰(불국사, 선유사, 내장사) 다섯 개의 기도사찰(선문사, 연주암, 보문사, 흥련암, 보리암)을 종단의 직영사찰로 지정하여 공개 운영해야 한다. 직영 사찰은 현 주지의 임기가 끝날때 동시에 공개 운영체제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위의 아홉 개 사찰에서 얻어지는 재정수입을 기반으로 하여 '불교 발전 재단'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 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 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를 따듯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 심야전력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력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야전력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 심야전력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써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심야전력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부방담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 문의전화 ■
0343) 468-7200(대)
영인분: 0343) 445-6090
FAX: 0343) 445-3370

건강에의 신비! 옥

천문 玉山家玉

오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태고에서 무덤까지 돌을 달고 산 한국인들

❖ 처녀가 옥을 걸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판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귀를 기른 결과 속눈썹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양규박사팀)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고 그외 나머지는 37%~84.8%의 치료효과를 보였다. (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옥목걸이와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렐레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라야 승패가 걸립니다.

玉山家 (02)777-0105 (벽옥옥)

애독자 사은 생활 기공지도

독자 여러분의 요청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수련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생활 기공 지도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내 용 ·

가. 변성식 상태수련
「보이지 않는 것을 과학한다」
도시출판 물병자리 박희준 옮김 참조

나. 공기공과 원공공
「고차원 치료 능력자들의 세계」
도시출판 단. 박희준 지음 참조

다. 정심조식법(正心調息法)
(소망성취에 도움이 되는 명력 개발 특수 호흡법·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임)

라. 오라 충전법 기타.

· 일시와 장소 ·

가. 일 시 : 1999년 1월부터 수시접수
나. 장 소 :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교실 (전화 02)720-5682/ 725-2311
서울시 중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 B/D 809호

다. 지도자 : 번역저술가·레이키 마스터·티처 박희준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레이키법도 전수합니다.

불교알력

추가제작을 알려드립니다.

불기2543년도 불교달력을 배본하시다 부족하신 여러 스님네의 요청에 의하여 불교달력을 추가로 제작 하였습니다. 음력 설까지 적은양의 달력도 주문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 오장동 69-2

강진정판사

TEL. 02)272-2371 · 269-5040
02)275-9472
FAX. 02)268-2391